

미국발 신용경색·경기 침체 ‘악몽’ ... 국내 증시 ‘와르르’ 천수담 장세 언제까지...

코스피 지수 39P 급락 옛새만에 1700선 붕괴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 어렵다” 비관론 확산

미국발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의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변동 조짐을 보이던 주식시장이 재차 급락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감당해야 할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손실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의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됐다.
그러나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는 와중에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희망도 나왔다.
▲미국발 신용경색·경기침체 악몽 재연 = 3일 코스피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39.89포인트(2.33%) 급락한 1,671.

73. 코스닥지수는 11.43포인트(1.74%) 떨어진 644.51로 마감됐다.
국내 증시는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창사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분기손실을 기록한 AIG와 델의 부진한 실적 발표 등으로 2% 이상 급락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4.49%)와 대만 가권지수(-1.78%)도 급락 마감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1월 글로벌 증시의 폭락을 야기한 신용경색 및 경기침체 우려가 재차 주식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 시기상조 - 증시도 당분간 조정” =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

운데 미국의 경제지표가 추가 악화하자 올해 하반기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확산했다.
이상재 현대증권 거시경제팀장은 “올해 상반기 미국 실물경기의 정체 및 서브프라임발 신용경색의 여진은 이미 노출된 악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경제의 핵심은 공세적 금리인하에 힘입은 하반기 경기회복”이라며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인하 정책에 올인할수록 인플레이션 억제력 약화가 하반기 경기회복의 장애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연준의 금리정책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올해 안에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 변수에 좌우되고 있는 국내 증시도 당분간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경기 바닥권 진입 - 경기회복 멀지 않았다 = 그러나 경제지표의 잇따른 악화는 미국의 경기 바닥권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낙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동수 중앙증권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주목할 점은 미국의 주택경기가 멀지 않아 바닥을 통과할 가능성이”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 관련 투자비중이 작년 4.4분기 중 3.7%까지 낮아져 과거 미국 경제 침체 시기의 바닥에 근접하고 있어 올해 1.4분기를 기점으로 주택경기 부담이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천수담(天水灘) = ‘하늘(天)’에서 내리는 ‘빗물(水)’에란 의존하는 ‘논(畝)’을 말한다. 천수담장세란 뉴욕증시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우리나라 증시의 무기력함을 뜻한다.

증시 시총 9,574억달러
5년간 287% ↑
증가율 세계 7위

최근 5년간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287.45% 급증,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4%포인트 높아진 1.72%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2002년 말 2천471억달러에서 지난 1월말 현재 287.45%(7천103억달러)가 증가한 9천57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시가총액 증가율 기준으로 7위를 기록한 것으로,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도 2002년 말 1.08%에서 1.72%로 확대됐다.
이 같은 비중확대에도 주요국 증시의 시가총액 순위에서는 2002년 말 16위에서 한 단계 하락한 17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올해 창업한다면... ‘친환경·웰빙’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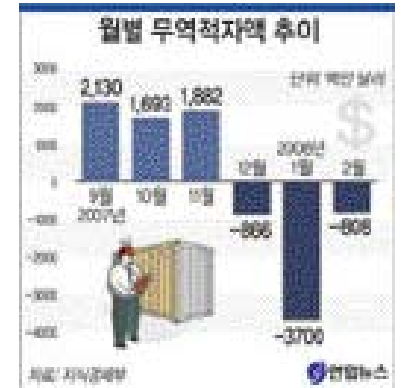
친환경 과일·아채 관심 높아

올해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친환경’, ‘퓨전’, ‘가격과파’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창업 컨설턴트 및 창업 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올해 창업 트렌드를 설문한 결과 ‘친환경, 웰빙관련 업종’(21.9%)이 제1순위로 꼽혔다.
비판인구의 증가, 새집증후군, 환경공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면서 ‘친환경·웰빙’이 가장 유망한 창업유형으로 떠올랐다. 관련 아이템으로 친환경 과일 및 아채, 유기농식품관련, 웰빙관련 음식점, 실내환경 개선업 등이 꼽혔다.
이어 급속한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모던화+퓨전화’(15.0%)와 소비심리 위축을 타개할 ‘가격과파’(14.1%)가 올해 유망 분야로 추천됐다. 관련 아이템으로 퓨전 음식점, 세계맥주전문점, 테마형 주점,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이 거론됐다.
가격과파 아이템으로는 재고할인매장, 사무용품 할인점, 수입 저가매장 등이 유망하다고 창업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밖에 ‘외국어 및 교육관련 산업’, ‘실버, 영·유아 산업’, ‘펀(fun), 조이(joy) 관련 시장’ 등이 올해 창업 7대 트렌드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무역수지 3개월째 적자

2월에도 8억달러 ... 수출 호조 불구 원자재 급등 악재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2월에도 8억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1월에 비해 적자폭이 줄기는 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적자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장기간 이어온 무역흑자의 적자까지 반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월 수출액은 작년 동기대비 20.2% 늘어난 315억3천500만 달러, 수입은 27.3% 증가한 323억4천300만 달러로 8억800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월에 이미 36억9천9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내 올해 들어 무역적자 누적액도 45억700만 달러로 늘어났다.
20%를 넘어선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낸 주원인은 역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 고공행진이었다. 원유 도입량이 지난해 2월보다 2.3% 감소한 6천810만 배럴이었지만 2월 원유도



임단가가 배럴당 91.4달러로 치솟으면서 도입금액은 작년 동기대비 60.2% 급증한 62억2천만 달러에 달했다.
자본재 역시 전체 수입증가율이 11.8%로 작년 동기(2.9%)에 비해 늘었으나 소비재 수입은 농산물(43.8%), 승용차(24.8%)의 가파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6.3%로 크게 낮아졌다. /연합뉴스



천연 바디용품점 ‘러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웰빙상품이 각광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생활관에 영국 천연 핸드메이드 자연주의 바디용품 ‘러쉬’가 입점,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광주신세계 제공)

“인사청탁 다시는 하지 말라”

농협 중앙회장, 직원 100여명에게 ‘경고장’
농협중앙회가 최근 인사청탁을 한 직원들에게 ‘따끔한’ 경고장을 보냈다.
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최원병 중앙회장은 최근 인사청탁을 한 직원 100여명에게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우편으로 보냈다.
농협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인사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단우조합장들이나 농림수산물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 등을 통해 청탁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기존에도 인사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구두로 경고 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토지보상금 29조원

작년에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된 보상금이 예초 예상보다 4조원 이상 많은 29조6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6년에 이어 2년연속 29조원대의 막대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참여정부 5년동안의 보상금 총액은 103조원을 넘어섰다.
3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급된 토지보상금은 29조6천182억원으로 2006년의 29조9천185억원보다 3천억원 적은 역대 2위 규모다.
작년 보상금을 포함할 경우 참여정부 5년동안 풀린 보상금은 103조184억원이다. 보상금은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업·산업단지 건설, 댐 건설 등을 하면서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영업보상금, 이주대책비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다시 토지시장으로 흘러들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채권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채권보상은 1991년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로 100원 벌어 원자재 수입에 67원 써”

전체 수출액 대비 원자재 수입액의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해 수출로 100원을 벌어 원자재 수입에 67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산업활동과 수출을 위해 원자재 수입량을 줄이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3개월 연속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가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연합뉴스

1주택 양도세 80% 공제 '부자동네'만 혜택 아닌가 광주·전남엔 단 한가구도 없어

부산·경남지역도 200여 가구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예정인 가운데 최고층의 양도세 감면혜택은 서울 강남 3개구 등 특정 '부자동네'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부산·경남지역 200여 가구를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양도세율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 보유자들은 부동산자산가 잠재가 극심한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도 수도권에 비해 덜 받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화할 것

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2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596만2천50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가 6억원을 초과하고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전체의 1.2%인 16만1천120가구에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최고 수혜가 가능한 아파트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4만8천875가구(전체 아파트의 2.49%)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만2천3가구(0.2%), 부산이 152가구(0.002%), 경남이 90가구(0.001%)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6억원 초과, 준공 후 20년 경과 아파트가 단 1채도 없었다. /연합뉴스

이한구 한나라 정책위장 “소득공제에 물가연동 도입”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과세기반 지속적 확충해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3일 소득세 개선방향과 관련해, “소득공제 혜택을 물가에 연동해 주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월급을 이를 상대로 한 세금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명목적 월급은 올라가는데 공제는 못따라가는 만큼 소득공제(혜택)를 물가에 연동해서 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생활비와 관련, 특히 영세자영업자도 근로자들처럼 교육, 주거비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소득공제 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세제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외국기업 유치 등의 작업을 위해서는 기업 과세제도가 합리적으로 돼야 한다”면서 “기업의 중부세 등 기업관련 세금은 가능한 한 빨리 손을 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주)대경텔레콤	SK대리점 매장직원 및 전산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6	062-606-8803
미추하우정	사무관리 및 경리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6	062-942-0440
오스닉스광주점	기업체 인쇄물/명함, 복투스터커, 브로셔등	고졸/경력1년	1600~1800	03/07	062-955-7890
(주)동방종합전기	2008년 영업사원(거처별 신규 개발 및 영업관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3/07	062-382-2114
중앙종합기획	맥런칭디자인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7	062-222-5349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산지원 채용	대졸/경력2년	2400~2600	03/07	062-530-1148
정수기랜드	정수기 설치기사 및 고객관리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07	062-264-2007
(주)초고딕	디자인 강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8	062-350-2505
신성하이텍(주)	생산·품질·총괄관리/생산직/경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8	062-952-1441
(주)신홍	2차 운전기사 모집 (키보트)	고졸/경력무관	3400~3600	03/08	062-513-8200
남해물건(주)	2008년 정규직 사원 모집(품질관리/영업)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3/10	062-943-8676
(주)휴넷	[연봉2200만원]SK텔레콤(광주)미남성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3/10	011-299-7000
한라IT	경리 및 매장판매사원 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10	062-526-3696
교보생명 FA Group	2008년 인터넷 및 신입 FA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0	062-524-4183

(광주주요기업에 512-6210 제공)

자동차 등록대수 1,600만대 돌파

3명당 1대 꼴 보유 ... 외제차 22만대 급증

지난해까지 국내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1천600만대를 돌파했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자동차 등록대수는 1천643만대로 2006년의 1천589만대보다 53만3천대가 늘어 3.4%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년 1천206만대를 기록한 이후 2002년 1천395만대, 2003년 1천459만대, 2005년 1천540만대를 기록하는 등 안정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말에는 1천700만대를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천201만대, 승합차가 110만대, 화물차가 317만대 등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9만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93만대로 그 다음이었다.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1994년 자동차 1대당 인구 6.13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05년 3.2명, 2006년 3.1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3.0명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외제차의 등록대수 증가는 폭발적이었다. 지난해까지 자동차 등록대수 가운데 외제차는 22만4천900대를 기록하면서 2006년의 17만6천300대에 비해 5만여대가 늘어 외제차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연합뉴스